

자

연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으로 산업사회는 기계적 대량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인류에게 풍요로운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인간의 기계적 사고와 자연의 균형을 깨뜨린 무분별한 개발은 오히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볼 때, 산업화의 과정에서 낙후된 개발도상국들은 아직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요체가 되는 과학기술 능력의 격차로 인하여 부유한 북과 가난한 남을 갈라 놓은 골짜기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간 경제력의 심각한 격차는 인류 전체의 번영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발전방식의 계속적인 추구는 지구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머지않아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대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인류의 문제들은 사고의 대전환과 아울러 새로운 발전에의 길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짧은 기간에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발전에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이며, 나아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은 산업사회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선진국에게도 새로운 발전에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인류 모두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의 상호보완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기술적 원천을 발굴하여 지구가족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